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5호 【루계 제24688호】 주체103(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휴양소의 관리운영과 휴양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 그리고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와 륜전기재들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풍과학자휴양소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한광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연풍과학자휴양소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가장 귀중한 혁명인재로 아끼고 내세우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도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친어버이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올해 정초에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온 나라에 과학중시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시고 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와 비품들을 선물로 보내주신것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베푸시는 최상최대의 특전이고 특혜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여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휴양소위치를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주신 연풍과학자휴양소야말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정책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 연풍과학자휴양소 소장 리영옥, 수학연구소 실장 김광호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인재중시의 탁월한 경륜을 펼치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긍지와 존엄을 높은 경지에 올려주시고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과학기술중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이며 과학기술발전에 민족의 흥망과 나라의 강성번영이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휴양소관리운영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과학자, 기술자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함으로써 연풍과학자휴양소를 후세에 길이 남을 창조물로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귀중한 설비와 기자재를 비롯하여 휴양소구내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알뜰히 관리하여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류한흥의 가족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류한흥의 딸 류소화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류소화가 9월 3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대홍단군 읍, 북청군 토성리, 천내군 로운리, 대흥청년영웅광산에 모셔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백두대지에 개척의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대홍단군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을 울려주시고 제대군인가정에 들리시여서는 태여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북청군 토성리, 천내군 로운리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는 광산을 세계굴지의 광물생산기지로 꾸려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함남의 불길창조자들인 이곳 로동계급을 평양에 부르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에 떠받들려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정중히 모셔졌다.

모자이크벽화 《원산차량로동계급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령도풍모를 길이 전하려는 철도성 청진철도공장 로동계급의 열의가 뜨겁게 어리여있다.

문천탄광에서는 천만군민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리!》를 정중히 모시였다.

혜산청년역, 혜산시 송봉지구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이 숭엄하게 형상되여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 풍년든 농장벌을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신흥군 부연리, 재령군 래림리에 모셔졌다.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마음안고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장한 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아시아녀자축구의 패권을 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과 일본팀사이의 결승경기가 1일에 진행되였다.

선군조선의 체육인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하며 막강한 실력을 보여준 우리 팀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 많은 관람자들과 축구전문가들, 애호가들이 경기장으로 모여왔다.

경기는 우리 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량팀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를 살리면서 우승을 위해 맹활약을 하였다.

일본팀 선수들이 개인기술에 의한 돌파를 시도하는데 대응하여 우리 선수들은 높은 집단력과 재빠른 기동으로 상대팀의 공격을 제압하면서 역습속공의 기회를 노렸다.

경기시간 12분경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넘어온 공을 혼전속에서 12번 김윤미선수가 멋들어지게 차넣어 일본팀 꼴문을 열어제꼈다.

실점을 만회해보려고 일본팀 선수들이 반공격에로 나오는데 맞게 우리 선수들은 앞선에서부터 공을 철저히 장악하고 중장거리련락으로 경기폭을 넓히면서 경기를 여유있게 운영해나갔다.

일본팀은 득점을 해보려고 부단히 시도하였으나 우리 팀의 잘 째인 방어진을 뚫지 못하였다.

전반전은 1:0으로 우리 팀이 앞선 가운데 끝났다.

후반전은 더욱 치렬하였다.

우리 팀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공격속도를 높였다.

경기시간 52분경 상대팀 방어수의 뒤공간으로 길게 넘어오는 공을 주장인 10번 라은심선수가 빠른 빼몰기로 일본선수를 떨구고 강하게 차넣어 또다시 득점하였다.

우리 팀은 경기시간 55분경 아쉽게도 한점을 내주었다.

그러나 경기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쥔 우리 팀의 맹공격으로 하여 일본선수들은 다급한 나머지 경기률동을 잃고 피동에 빠지였다.

경기시간 87분경 14번 전명화선수가 공격마당으로 몰고나오다가 왼쪽으로 깊숙이 찔러준 공을 2번 윤성미선수가 넘겨받아 문앞으로 길게 련락해주었다.

순간 3번 허은별선수가 돌입하면서 머리받기로 또다시 통쾌하게 득점하였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일본팀을 3:1로 압승하였다.

경기마감을 알리는 주심의 호각소리가 울리자 우리 선수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한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였다.

시상식에서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영예의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높이 올랐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아시아의 축구강팀, 축구강자로 자라난 자기들의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수준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은 텔레비죤방송을 통해 조국의 장한 딸들의 경기모습을 커다란 흥분속에 시청하였다.

미더운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승리의 소식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조국과 인민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장쾌한 승전소식, 온 나라가 격동과 환희로 들끓는다

지난 10월 1일 밤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온 나라가 크나큰 격동과 환희로 들끓고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선수들과 숨결을 함께 하며 경기장을 달려온 우리 인민이기에 기다리고 바라던 승전소식에 기쁨과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번 승리는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확증해주는 뜻깊은 사변이며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온 누리에 과시한 장쾌한 승전포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텔레비죤방송으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 결승경기를 커다란 흥분속에 지켜본 각계층 근로자들은 누를길 없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고있다.

체육성 국장 방문일은 말하였다.

《10여년전 남조선의 부산땅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날린 우리 녀자축구가 오늘 또다시 인천땅에서 선군조선의 통장훈을 불렀다. 우리 식 경기전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리고달려 일본팀을 통쾌하게 타승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빛내인 승리자들을 하루빨리 얼싸안고싶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여 우리 녀자축구발전의 미래는 창창하다.

오늘은 아시아무대를 뒤흔들어놓았지만 머지않은 앞날에는 전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릴것이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 룡성구역대대 대대장 리종철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이겨도 그렇게 통쾌하게 이길줄은 몰랐다. 온 대대가 텔레비죤방송으로 결승경기를 보았다.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더 기백있는 경기모습들을 펼쳐보이며 우리 선수들이 련속 꼴포성을 터뜨릴 때 모두가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녀자축구선수들이 안아올린 승리는 우리 대대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더없이 위력한 정치사업이나 같다.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경기무대에서 빛내인 람홍색공화국기를 완공된 발전소언제우에 펄펄 휘날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희천9호발전소 건설자들의 신심과 의지는 확고하다.》

은정구역청소년체육학교 축구지도교원 박혁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 녀자축구팀의 우승을 처음부터 확신하고있었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이번 경기대회를 앞둔 시기에는 우리 선수들의 검열경기도 몸소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세계, 뜨거운 열정의 세계가 우리 선수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였다. 남조선땅 한복판에 우리 공화국기를 높이 띄웠으니 그것이 더욱 기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체육강국의 래일을 위하여 학생들을 훌륭한 축구선수후비로 키우는데 량심과 재능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겠다.》

김만유병원 로동자 김창식은 《사실 어제 저녁 우리 녀자축구팀이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시작한 그 시각부터 초조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아마 온 나라가 그렇게 기다렸을것이다. 드디여 밤 10시쯤에 결승경기가 우리 팀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뒤이어 텔레비죤으로 방영한다는것이 아닌가. 밤은 깊었지만 경기 전과정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보았다.

사실 일본팀과의 결승경기는 힘든 경기인데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기백있게 훌륭히 결속하였다.

승리의 단상에서 우리 선수들이 애국가의 선률속에 창공높이 오르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안해도 눈물이 나오는것을 참지 못하였다.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차게 일으켜주신 축구열풍, 체육열풍속에 지금 온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일요일에도 김일성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댔는데 어떻게 날아왔는지 우리 남자축구팀이 아랍추장국련방팀을 1:0으로 이기고 준결승단계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경기를 보던 관람자들이 떨쳐일어나 환성을 올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온 경기장이 떠나갈듯 하였다. 곧 진행되는 결승경기에 나서게 될 우리 남자축구선수들의 경기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포항구역 수북고급중학교 미술교원 윤정환은 《첫번째 득점은 김윤미선수의 묘한 차넣기로 이루어진것이다. 정말 후련하다. 이어 주장 라은심선수가 역습속공으로 번개같이 돌입하여 공을 정확히 상대팀 꼴문구석으로 차넣기하는것을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

세번째 득점은 그야말로 평양날파람의 머리받기동작을 련상시킨다. 허은별선수가 자기의 머리받기특기를 잘 살려 마지막 꼴을 빛나게 장식했다. 득점련락도 맵시있었고 2, 3인결합도 멋있었다. 홍명희문지기의 역할도 정말 훌륭했다. 높은 공이건 낮은 공이건 공이 척척 그의 손에 붙었다.

녀자월드컵을 보유한 일본녀자축구팀을 타승하고 통쾌한 승리를 안아온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정말 장하다. 통쾌한 득점장면들이 아직도 눈앞에 얼른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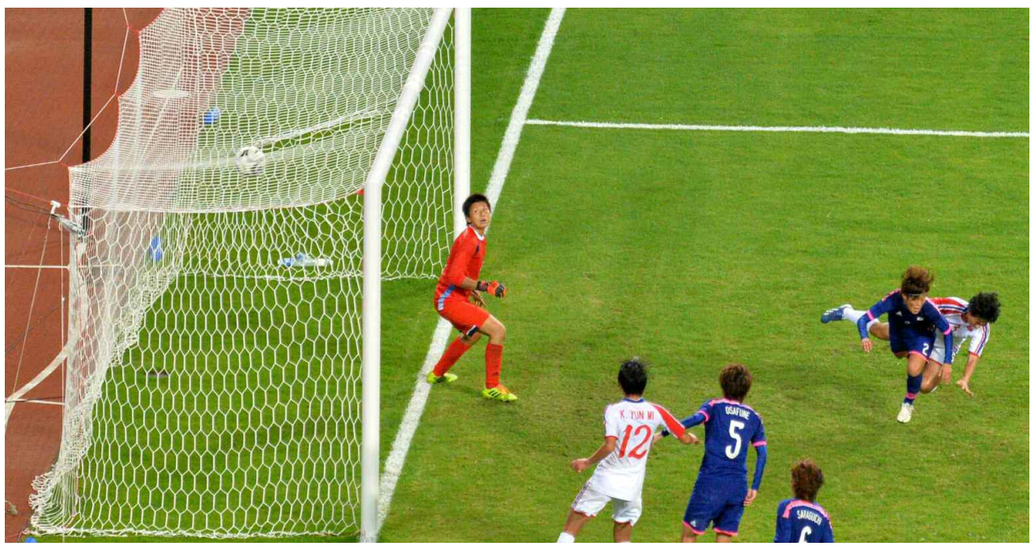
우리 학교의 미술소조원들이 그 인상깊은 득점장면들을 화폭에 옮기겠다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어찌 통쾌한 득점장면들만 그리겠는가.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공화국기가 오를 때 시상대에서 거수경례를 하던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미더운 모습도 영원한 화폭으로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녀자축구선수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한다.

조국과 인민은 환희로운 축하의 꽃바다를 펼쳐놓고 날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친 장한 딸들을 기다리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위력떨치고있는것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사상의 위대성은 시대성, 과학성과 함께 그 독창성에 있다.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공식에도 없는 새로운 사상과 리론으로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의 견인력과 생명력은 영원하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진수로 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격동하는 21세기와 더불어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이런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 바로 여기에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이 있으며 거대한 생명력이 있다.

세상에는 위인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기여한 사상들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뿐아니라 시대와 력사발전에서 거대한 변혁적위력을 발휘한 위대한 혁명사상은 일찌기 없었다.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백승의 한길로 나아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이야말로 천만년 길이 전해갈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라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내세우고 실현하려는 근본리념이다.

무엇을 중심에 놓는가 하는것은 해당한 사상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하는것을 판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어느 사상이든지간에 어떤 중심에 기초하여서만 자기의 주의주장을 전개하고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갖추어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에 존재한 사상들은 다 물질이나 의식을 중심에 놓고 자기의 리론을 전개하였다. 물질이 아니면 의식을 중심에 놓고 사상리론을 전개하는것은 지난 시기에는 어찌할수 없는 일로 간주되여왔다. 선행한 혁명사상도 물질중심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의 조건을 밝히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선행한 혁명사상과는 달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다시말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문제를 사람,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제기하고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 새로운 혁명사상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중시의 관점과 립장에서 혁명실천도 사상리론활동도 벌려나가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된 우리 조국에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결부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적극 복무하고있다.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정권과 군대도 인민정권, 인민군대이며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궁전과 도서관, 극장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극장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결속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남김없이 발양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이 세상에 인민대중제일주의보다 더 훌륭한 리념은 없다.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절대시하고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생명력은 무궁무진하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은 다음으로 그 구성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선행한 혁명사상은 당대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의 학문적인 구성체계를 갖추었다. 이와는 달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 혁명실천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사상과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 령도방법의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있다.

혁명적수령관과 주체의 사상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리론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모든 사상리론적내용들도 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제기하고 밝혀주신것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만능의 보검으로 내세우는 선군혁명사상을 밝혀주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류자주위업수행의 가장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여러 계급과 계층, 사회적집단가운데서 혁명군대는 혁명의 핵심력량, 주력군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었다.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혁명의 총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와 관점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총대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이 독창적이고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광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박사 부교수 김 광 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

연혁소개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당의 령도밑에 해당 단위가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중교양장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연혁소개실에 있는 사적자료들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연혁소개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 공장에 어려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연혁소개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충실성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다.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매개 단위의 연혁소개실을 보면 그 단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생동한 화폭으로 볼수 있다. 종업원들은 연혁소개실을 참관하면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 고매한 풍모,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여러가지 질좋은 천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연혁소개실을 참관하면 백두산3대장군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다는것을 한눈에 보고 알수 있다. 누구나 연혁소개실에 전시되여있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써오시였는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생동한 화폭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한다는 여기에 연혁소개실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의 큰 실효가 있다. 이 공장에서 일군들과 방직공들이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데는 연혁소개실을 통해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든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연혁소개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단위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잘 알게 하고 뜨거운 공장애와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게 하는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다.

연혁소개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당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그 나날에 배출된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이 년대와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소개되여있다. 연혁소개실참관은 종업원들에게 자기 일터,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애국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해당 단위의 연혁소개실에는 혁명의 년대기마다 영웅적으로 투쟁한 참된 애국자들의 값높은 위훈도 새겨져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한생을 값있게 바친 영웅들의 빛나는 삶과 숭고한 인생관은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은 사람들을 시대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추동하는 힘있는 긍정감화교양으로 된다.

이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질좋은 제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는 천지윤활유공장의 사업경험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 공장의 연혁소개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현대적인 윤활제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자료와 함께 공장이 어떻게 오늘과 같이 꾸려지게 되였는가 하는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자료가 전시되여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하여 자체의 힘으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꾸려놓은 남다른 보람과 자부심을 새기고있으며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과 같은 티없이 깨끗한 충정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이렇게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애국심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으로 하여 실효성이 매우 큰 사상교양사업으로 된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우리 당은 사상적순결체

조선로동당은 전당에 수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사상적순결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사상건설은 당을 사상적순결체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혁명하는 당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친 사람들의 정치적조직체이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조직이다.

당은 사상을 피줄기로 하여 존재하며 활동하는 하나의 유기적통일체이다. 사람의 몸안에 다른 형의 피가 섞이면 살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당도 다른 사상을 허용하면 자기 존재를 유지할수 없다.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야 그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이룩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당을 사상적순결체로 만든다는것은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안에 수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운다는것이다. 전당의 사상적일색화, 바로 여기에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면모가 있고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은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당의 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갈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당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활동하는 수령의 당으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사상적순결체로 존엄떨칠수 있게 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위용떨치고있다.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에 기초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성을 굳건히 담보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리 강 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현장으로 나간다. —신성천철도분국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부쟈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무력총사령관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각하

나는 나이제리아인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독립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나이제리아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9월 30일 평 양

니코시아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니꼬스 아나스따시아데스각하

나는 끼쁘로스독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10월 1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스웨리예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9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솬러브 보 토르켈 주조 스웨리예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홍단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영광의 땅 대홍단군에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관이 새로 건설되여 개관하였다.

대홍단혁명사적관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답게 일떠섬으로써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피줄기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훌륭히 이바지하게 되였다.

이곳에는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불모의 땅에 인민의 새 세상, 사회주의선경을 일떠세우기 위해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으며 수백점의 사적자료들과 사적물, 유물들이 전시되여있다.

개관식이 1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안문학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군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상원책임비서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대홍단혁명사적관을 개관하게 되는 이 시각 참가자들은 대홍단군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찌기 대홍단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 7월 30일 백두고원에 국영5호농장을 창설해주시고 여러차례 찾으시여 농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에 나오신 력사의 그날 소중히 보관하시였던 밀종자를 사동천기슭의 추녀낮은 귀틀집 녀인에게 주시는 사랑의 전설을 수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감자농사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고 백두삼천리벌에 과학농사, 기계농사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대홍단군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 로동당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연설자는 대홍단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에 아로새겨진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령도업적을 길이 전해갈 충정의 마음안고 대홍단혁명사적관을 일떠세웠다고 강조하였다.

군내 근로자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해마다 감자대풍을 마련하며 군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킬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을 잘 꾸리고 원상대로 보존관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홍단혁명사적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관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넋을 심어주시며

주체적음악예술의 자랑스러운 행로우에 수놓아진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길수록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음악예술에서 주체를 세울수 있고 음악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주체55(1966)년 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음악대학(당시)의 교원, 학생들을 부르시였다.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교원, 학생들이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대형피아노 한대가 놓여있는것이였다.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가 욕심을 낼 피아노에로 모두의 눈길이 쏠렸다.

그러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따뜻이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음악대학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피아노를 대학에 선물로 보내도록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교원들과 학생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에 넘쳤다. 모두의 얼굴마다에 밝은 웃음이 어리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한 일군만은 몹시 서운한 안색이였다.

그 일군은 이 피아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애용하신것인데 대학에는 다른 피아노를 보내셨으면 하는 의향을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피아노를 대학에 보내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뜻이자 자신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후대교육을 위하여 아까와하지 말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서운함을 풀어주시려는듯 한 학생에게 피아노를 한번 타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 기쁨을 드릴 마음을 안고 피아노를 마주한 학생은 다른 나라의 명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학생의 연주가 다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 다른 학생에게 피아노를 타보라고 이르시였다. 그 학생 역시 다른 나라의 고전곡을 재치있게 연주하였다.

손에 땀을 쥐고 실수하면 어쩌나 하며 학생들의 연주를 지켜보던 교원들은 안도의 숨을 쉬였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다른 나라의 명곡만을 택하여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대학의 교육실태를 헤아려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깊으신 뜻을 미처 알수 없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난 학생들의 장래를 두고 하시는 그이의 준절한 말씀에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명곡들을 연주할줄 알아야 기량이 높은것으로 생각하고있던 그들이였다.

교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심한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너그러이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선률 하나를 골라도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것을 골라야 하며 노래 한곡을 배워주어도 조선혁명에 필요한것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음악이 인민을 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참다운 음악이 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앞으로 음악대학에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모든 학생들을 우리 음악예술의 대를 이어갈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그리하여 세계를 들었다 놓는 재능있는 독주가, 성악가수도 바로 음악대학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오는 사연깊은 피아노를 안겨주시며 깨우쳐주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눈은 세계를 보되 넋은 조국에 두어야 한다는 철리를 모두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었다.

주체의 토양우에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하나음악정보쎈터를 찾으시여 열화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조국땅우에 선군시대 음악예술의 화원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것 아니랴.

채 히 성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김 정 은

분조전투력이자 집단경리의 생활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가을걷이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7일동안에 강냉이가을걷이를 끝낸 기세로 20여일동안에 벼가을과 낟알털기까지 결속할 목표를 제기하고 매일 수십정보의 벼가을을 하고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농장에서 분조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집단경리의 생활력이 발휘되도록 한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며 분조농사와 관리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농촌의 초급지휘성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농장일군들은 분조의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특히 분조장들이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벼가을을 6일동안에 해제낄 목표를 세운 제1작업반 1분조의 경험을 일반화한 사실이 그 실례이다.

원래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였을 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은근히 걱정하였다. 습지대벼가을은 품이 많이 들기때문이였다. 이때 관리위원장이 분조의 전투력이자 집단경리의 생활력이라고 하면서 제1작업반 1분조는 벼가을면적이 적거나 로력이 많아서 가을걷이목표를 높이 세운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올해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며 분조의 전투력을 높여야 짧은 기간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끝낼수 있다고 지지해나섰다.

무슨 일이든 무조건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부터 앞세우면 방도가 서기마련이다.

제1작업반 1분조의 가을걷이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지난 시기 벼가을을 10일동안 하던 기존관례를 깨버릴 담보를 어떻게 찾아냈는가를 따져보았다.

알고보니 분조장은 벼가을일정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포전에 나가 한시간동안 벼를 가을하였다. 그리고 농장원 한명이 하루에 얼마나 벼를 벨수 있는가를 타산해보았다. 하루평균 300평, 최고 500평까지도 가을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기준하지 않았다. 농장원들의 나이와 경험, 체질, 가정생활형편 등이 다르기때문이였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녀성농장원들은 그 누구보다 시간이 긴장하였다.

그는 농장원들의 이러한 특성과 포전들의 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을걷이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나이가 젊은 청년들은 먼 포전을, 어린이가 있는 녀성들은 마을 가까운 포전의 벼를 가을하도록 하였다.

분조장의 면밀한 조직사업은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날이 밝기 바쁘게 포전으로 달려나가 일손을 잡은 농장원들은 경쟁적으로 벼가을을 해나갔다. 한편 나이가 많아 일손을 놓았던 로인들은 숫돌을 들고 포전머리로 나와 농장원들의 낫을 갈아주기도 하고 흘린 벼이삭도 모아들이였다.

분조장은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로력일평가성원들과 함께 충분히 합의를 본데 기초하여 하루총화평가사업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하였다. 결과 분조의 전투력이 더 높아져 첫날에 벌써 계획보다 1.5배나 더 가을하였다. 이것은 벼가을을 6일동안에 해낼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현실은 가을걷이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드는것만큼 대중의 열의가 앙양되여 분조의 전투력, 집단경리의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분조는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단단위이다. 분조의 전투력이 높아지는것만큼 집단경리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여 가을걷이실적이 오르게 된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분조들에서 농장원들의 체질과 능력, 가정생활조건 등에 맞게 로력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분조장들은 보다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따라서 대중의 열의가 높아져 벼가을실적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뛰여올랐다.

가을걷이를 적기에 하자는 목적은 알곡생산을 늘이자는것이다. 그러자면 첫째도 둘째도 낟알의 허실을 없애야 한다.

일군들은 문제를 이렇게 보고 모든 분조들에서 제7작업반 1분조에서처럼 벼를 베는족족 단을 묶어 세우도록 하였다. 포전이 아직 젖었으므로 벼를 가을하여 눕혀놓으면 땅에 닿은 이삭은 습기를 받았다. 때문에 벼를 베는족족 단의 직경이 20㎝정도 되게 묶어 세우면 더 잘 말라 낟알의 질이 좋아질뿐아니라 벼알이 떨어지는 현상도 없앨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농장의 모든 분조들에서는 벼를 베는족족 자그마하게 단을 묶어 세우게 되였다.

이 농장의 경험은 분조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집단경리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영광의 그날을 안고 살자

◇가을걷이가 한창인 벌방, 산간 어느 농장포전에 가보아도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미더운 초급일군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분조장들이다.

분조농사를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가을걷이시작부터 실천행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확실히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이후 우리 분조장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분조장들이 모내기와 김매기철처럼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도 앞채를 메고 달리며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런 미더운 모습은 운전벌과 열두삼천리벌만이 아닌 그 어느 벌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분조장의 임무를 심장에 새겨안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는 이런 분조장들이 많아 사회주의전야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한 분조장들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당의 농업정책이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분조장의 임무를 5가지로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분조장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이다.

모든 분조장들이 자기 임무를 잘 알고 충실하게 일해나갈 때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올해에 모내기와 비배관리 등 영농공정에서 혁신을 일으켜 풍성한 결실을 마련해놓고 가을걷이전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는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 어랑군 운곡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를 비롯한 많은 분조들의 경험이 이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이다. 이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는가 못 거두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분조장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새에 달려있다.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은 오늘 우리의 분조장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전투임무이다.

◇ 분조장들은 영광의 대회장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여야 한다.

모든 분조장들은 그날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실천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분조장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리며 새벽이슬도 남먼저 맞고 밤잠도 남보다 적게 자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분조의 실정에 맞게 가을과 단묶기, 운반, 낟알털기, 수매계획을 빈틈없이 세우며 작업조직을 면밀히 짜고들어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매일 로력일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분조원들의 열의를 높여주어야 한다.

분조장들은 분조의 맏형, 맏누이가 되여 분조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며 영농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그 생활력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분조장들은 영광의 그날을 심장에 안고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과 조국앞에 떳떳이 나서자.

왜 3분조를 평가했는가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는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농촌의 말단단위입니다.》

며칠전 저녁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하루벼가을총화모임을 진행할 때였다.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분조장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누구나 1분조가 평가될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어느 분조나 실적이 높았지만 그속에서도 1분조가 앞섰던것이였다.

하지만 총화결과는 그들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3분조가 높이 평가된것이 아닌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조장들을 둘러보며 작업반장 리창식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전에 작업반포전들을 돌아보던 작업반장은 3분조 농장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였다. 분조장이 어느 한 농장원의 일손을 멈춰세우고 자기가 벼가을을 해보이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얼굴이 벌개져 뒤더수기를 긁던 그 농장원이 잠시후 다시 낫질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베여내는 벼밀둥은 좀전보다 퍽 가지런해졌고 벼이삭도 한모양새로 놓이군 하였다.

분조장이 농장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십분 가늠할수 있었다. 그 농장원만이 아니라 3분조의 모든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작업모습을 눈여겨보던 작업반장의 생각은 깊어졌다.

이곳 농장원들은 줌안에 세포기의 벼를 모뜨듯 바로잡아 한쪽으로 넘기면서 베고있었다.

만일 벼베기속도를 높이려고 줌안에 많은 벼포기를 후려잡으면 벼밑둥이 가지런히 놓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낟알털기에 지장을 주는것은 물론 많은 낟알을 허실할수 있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한줄한줄의 벼베기를 량심적으로 해나가는 그들,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에 기쁨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열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3분조 농장원들이 더없이 미더웠다.

더우기 분조장자신이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분조원모두가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모습은 참으로 돋보였다.

《물론 벼베기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을 철저히 보장하라는것도 당의 요구입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우리가 봄내, 여름내 얼마나 정성다해 가꾸어온 낟알입니까. 우리모두 3분조동무들처럼 일해나갑시다.》

작업반장의 이야기가 남긴 여운은 컸다. 속도에만 신경을 쓰면서 질을 잘 보장하지 못한 지난날을 자책속에 돌이켜보는듯 얼굴을 붉히는 분조장들도 있었다.

작업총화모임이 있은 다음날부터 모든 분조들에서는 벼가을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누구나 당의 뜻대로 나라의 쌀독에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채워넣을 애국의 마음안고 벼베기를 질적으로 해나갔다.

벼가을을 질적으로 잘하니 벼단묶기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동가리치기실적은 물론 낟알털기속도와 질도 높아졌다. 많은 낟알허실을 막을수 있게 된것은 두말할것 없다.

본사기자 장 은 영

첫 이랑의 주인

황주군 장천협동농장 제11작업반 3분조장 한은옥동무

아직은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 포전으로 걸음을 옮기던 황주군 장천협동농장 제11작업반 3분조 농장원들은 그만 제자리에 굳어졌다. 누군가 벌써 나와 이동식탈곡기를 열심히 정비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분조장 한은옥동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장들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서 밑거름이 될 각오를 가지고 새벽이슬도 남먼저 맞고 밤잠도 남보다 적게 자면서 분조농사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제저녁 작업이 끝난 후 다 정비해놓은것이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이른새벽 남먼저 달려나와 마음쓰는 그 모습이 농장원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오늘도 첫새벽은 분조장이 먼저 맞이했구만.》

분조원들의 뜨거운 진정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한은옥동무가 말했다.

《당에서 우리 분조장들을 농촌의 선구자, 기수로 믿고 내세워주는데 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전투도 본때있게 해보자요.》

그러면서 제 먼저 일손을 잡는 한은옥동무를 바라보는 분조원들의 눈앞에는 온 한해 포전에서 남먼저 새벽을 맞아온 그의 모습이 삼삼히 어려왔다.

온 나라의 모든 분조들이 자기 몫만 정확히 수행해도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 원수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있지 않겠는가고 늘 외우며 봄내, 여름내 남먼저 첫 이랑을 타온 한은옥동무였다.

벼가을할 때에도 그가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었기에 분조는 벼가을과 동가리치기를 농장적으로 먼저 끝낼수 있었던것이다.

며칠전 저녁에는 이동식탈곡기가 갑자기 멎어서자 10여리길을 한달음에 달려 필요한 부속품을 구해옴으로써 그날중으로 동음을 또다시 울리지 않았던가.

분조원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끝없이 울려나왔다.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불같이 살며 일해가는 이런 분조장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랴.)

그들이 울려가는 이동식탈곡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새벽하늘가에 정답게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 벽동군 권창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신충찍음

가을걷이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인정미와 실적

재령군 북지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어느날 이른새벽 청년분조합숙으로 향한 사람들이 있었다. 농장 청년분조장과 그의 안해였다.

이날 그들이 청년분조합숙을 찾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전날 저녁 분조장은 몇명의 처녀분조원들이 절기가 바뀌면서 몸이 불편해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처녀분조원들의 건강회복에 좋은 약재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리 밤길을 떠나려고 서둘렀다.

저녁마다 청년분조합숙에 나가 청년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봐주던 안해도 그를 따라나섰다.

이런 사연을 알게 된 분조원들의 가슴도 뜨거웠다. 어려운 일은 도맡아하며 청년들이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꾸준히 배워 분조농사의 참된 주인이 되도록 따뜻이 이끌어준 분조장, 합숙생활을 하는 분조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늘 마음쓰며 집에서 기른 여러마리의 돼지도 보내주고 생일상까지 성의껏 차려주군 한 그는 진정 분조의 맏형이였다.

이렇듯 뜨거운 인정미에 끌려 친형제처럼 더욱 단합된 분조원들은 벼가을걷이를 제일먼저 끝내고 낟알털기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수리기지현대화를 위해 틀어쥔 중심고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남전기설비수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기계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것입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청남전기설비수리공장은 해마다 수많은 고압전기기계들을 수리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줌으로써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다.

10여년간 종업원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공장에서 수리하는 전기기계의 종류와 대수는 해마다 많아졌고 그 질적수준도 현저히 올라갔다.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쪽무이벽화》가 질좋은 절연물이 되기까지

이전에 운모광석을 얇은 쪼각들로 쪼개여 수공업적방법으로 붙여 판운모종이를 생산할 때 공장의 종업원들은 그것을 《쪽무이벽화》라고 불렀다.

《쪽무이벽화》를 생산할 때에는 많은 로력이 동원되여서도 일자리가 푹푹 나지 못했고 얇은 운모쪼각들이 고르롭게 붙여지지 않아 절연물의 질도 그닥 좋지 못했다. 공장의 일군들은 전기설비수리에서 가장 관건적인 고리인 분말운모종이생산공정을 갖추어놓음으로써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의 진맛, 기술혁신의 좋은 점을 더 잘 인식하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자고 결심하였다.

그를 위해 기술자들인 김정철, 안창남동무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오랜 기능공들인 라영남, 박명철동무들도 합심하여 질좋은 절연물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달라붙게 하였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인내성있게 노력한 끝에 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절연종이초지기와 분말운모종이생산설비를 갖추어놓았고 중주파유도로, 운모광석소둔로, 압연소재가열로, 동선소둔로 등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분말운모종이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콤퓨터에 의한 고압전기기계종합시험반을 자체로 제작하였으며 련이어 파동에 의한 동선생산공정, 고압전동기의 롱형회전자재생공정도 꾸려놓을수 있었다.

콤퓨터에 의한 고압전기기계종합시험반을 자체로 제작한 후부터 수리한 전기기계들에 대한 성능검사의 과학성은 보다 철저히 담보되게 되였다.

또한 파손된 전동기에서 나오는 파동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동선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파권선을 또다시 재생리용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그 우월성은 전기기계수리시간의 단축과 수리한 전기기계의 성능제고, 로력의 절약으로 검증되였다.

가장 관건적인 고리인 분말운모종이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거기에서 일으킨 기술혁신의 불꽃을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로 지펴올려 하나하나 련관된 생산공정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현대화하니 기술갱신속도도 지난 시기보다 대단히 빨라졌다.

그렇게 수리한 전기기계들은 해당 단위들에서 새것이나 다름없이 은을 냈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주타격대상을 먼저 정하고 하나씩 모가 나게 기술혁신을 하여 생산공정을 점차적으로 현대화하였다.

생산자대중이 기술혁신의 진맛을 알게 하고 《쪽무이벽화》가 질좋은 절연물로 되기까지의 기술혁신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적착상을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련속 현대화하게 한 일군들의 경험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위해 일군들이 있다

끊임없이 기술을 갱신하여 자체의 힘으로 수리설비들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는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뒤에는 언제나 강웅일, 리순철, 리철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서있다.

이 공장에 가면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군들의 역할이 눈에 띄게 알린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집행할 때까지 모든 조건보장은 일군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몫을 책임지는것과 함께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다같이 보조를 맞추기도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지난 시기 못쓸 땅이라고 버림받던 곳에 질좋은 부식토를 이악하게 날라다 펴서 노란자위땅이라고 자랑할만 한 부업지를 만들었고 넓은 면적의 양어장도 새로 건설하였다.

그 덕으로 몇년전부터는 매일 종업원들에게 콩우유 등을 공급하고있으며 4년전부터는 매달 종업원들에게 생일상도 차려주고있다.

최근에는 자체로 종업원들의 땔감을 해결해주기 위해 착화탄생산기지도 새로 꾸렸다.

거기서 생산하는 착화탄도 성분배합비률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탄으로 빚어 시험적으로 우선 기술자, 기능공들의 가정에서 리용해보면서 효과성을 검증하게 하고있다.

좋은것이 하나 생겨도 실적을 내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남먼저 돌려주기때문에 종업원들 누구나 그들에게서 배우려하고 기술혁신조에 망라되고싶어한다.

공장의 일군들은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업을 기술혁신에로 지향시켰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노력하고있는 공장일군들의 사업경험 역시 시사적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 성 근

석탄생산의 밑거름이 되여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석탄생산에서의 성과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더 많은 동발나무를 탄전으로!

이런 비상한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탄광들에 갱목과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주며 생산한 석탄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합니다.》

얼마전에 열린 초급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초급당비서 량일동무는 절절히 말하였다.

《동발나무생산실적이자 석탄생산실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 서야 할 기수는 바로 우리들자신이라는것을 명심합시다.》

회의에서는 동발나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그것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초급당집행위원들이 한개 작업소씩 맡고 내려가 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례년에 보기 드문 가물로 하여 나라의 전력사정이 매우 긴장하다. 화력탄보장에 그 어느때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하는 지금 동발나무생산을 맡은 우리가 잠시나마 신들메를 풀수 있겠는가. …

일군들의 호소는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동발나무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전투장의 분위기는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사업소의 사무원들과 생필직장 로동자들도 산판에 올라 동발나무생산실적을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나무들을 베여내는족족 실어나르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명대작업소를 비롯한 작업소들이 밤을 모르고 들끓고있다. 여기저기에서 홰불이 타오르는 속에 상차작업이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다.

자동차운전사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밤잠도 잊고 운행길을 줄기차게 달리는 김영성동무를 비롯한 운전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연유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자동차들이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면서 수송전투를 중단없이 벌리도록 하는 한편 다이야,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산지합숙에서 로동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애로도 풀어주고 후방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동발나무들은 제때에 수송되여 철도역에 가닿고있다.

《우리가 더 많은 땀을 흘릴수록 석탄산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배인 박남석동무의 소박한 이야기는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는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순결한 충정의 세계를 엿볼수 있게 한다. 아울러 그들이 앞으로도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돌격전에서 선봉투사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게 한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농촌기계화초병된 영예를 안고

천내군 금성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 박경철동무는

농촌기계화초병된 책임감과 영예를 안고 뜨락또르들을 만가동시켜 알곡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올해 봄 그는 조건이 어려웠지만 선반공, 수리공이 되여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하고 운전수들과 함께 수리도 하면서 뜨락또르들의 출동준비를 원만히 갖추었다.

모내기철에는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리길을 한밤중에 달려가기도 하였고 뜨락또르운전대를 직접 잡고 써레치기를 하며 새날을 맞기도 하였다. 그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부모잃은 한 뜨락또르운전수의 결혼식을 차려주었으며 후방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문 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개막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근로자들과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가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학생, 유치원생, 가두녀성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과 체육선수들이 참가하여 대중체육 및 오락종목경기들을 벌리게 된다.

개막식이 10월 1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자!》라는 구호들이 경기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각 도(직할시) 선수들과 응원단성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였다.

최룡해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속에 열리는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대회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여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조직력, 단결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발휘하여 나라의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참가자들모두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특색있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을 적극 고무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체육강국건설에로 나아가는 전체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래 《조국찬가》의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체육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였다.

개막식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함경남도와 라선시사이의 청소년녀자축구경기와 륙상경기가 진행되였다.

대중운동의 위력 떨치며 힘차게 전진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군중동원방법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입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단위사업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희천시 마선협동농장 제4작업반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반에서는 수종이 좋은 꽃판목들과 백도라지, 잣나무를 정성껏 마련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수목원에 보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자료를 비롯한 200여점의 교양자료들을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 갖추어놓고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알곡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자체의 힘으로 농촌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려놓고 집집마다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를 심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였다.

평양블로크공장 부재생산직장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현실성있으면서도 동원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드팀없이 구현하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장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10여명의 기사, 기수들을 키워냈다. 혼합공정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공정에 적극 받아들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질좋은 부재와 블로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청진시 송평구역 서항소학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상교양의 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졸업생들속에서 6명의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견방종합직장, 중구역도시시설관리소 가로2작업반,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점판암광산 공무작업반, 안주시 남칠협동농장 제5작업반, 천마군 대하협동농장 제1작업반, 운산군 부흥협동농장 제2작업반 당조직들에서는 결의목표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온성군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 은천군 안리협동농장 제7작업반, 안악군 월정협동농장 제2작업반, 신천군 사창협동농장 청년작업반, 연산군 읍협동농장 제3작업반, 사리원시원림사업소 양묘작업반, 룡림군 후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화대군 읍협동농장 제4작업반, 경원군 동림협동농장 제2작업반 당조직들에서는 긍정적모범을 찾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대중운동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이밖에도 단천시 신풍협동농장 제2작업반, 정평군 률성협동농장 제3작업반, 고원군 락천협동농장 제1작업반,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제5작업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공작기계직장, 곽산역 당조직들을 비롯한 많은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

자강도에서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지난 9월 12일 하루동안에만도 많은 량의 파철을 수십대의 자동차들에 실어 대고조전투로 들끓는 제강소들에 보내주었다.

올해에만도 도에서는 여러차례의 자동차집중수송으로 강철전선을 지원하였다. 도의 일군들은 강계철도분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매달 많은 량의 파철을 화차에 실어 제강소들에 보내주었다. 강철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림업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강계시, 성간군, 장강군, 전천군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금속공업부문을 지원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두가 파철수집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고있다.

도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은 낡은 설비들을 대담하게 페기시키고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파철을 모아 강철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파철수집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매월 맡겨진 파철수집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더 많은 파철을 모아 제강소들에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은 철강재증산에 떨쳐나선 제강소로동계급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우리 나라 장은희선수

녀자권투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장은희선수가 1일 녀자권투 75㎏급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예선경기에서 우즈베끼스딴선수를 1회전 1분 45초만에 완전넘어뜨리기로, 준결승경기에서 까자흐스딴선수를 3: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차이로 누른 장은희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중국선수와 승패를 다투었다.

그는 높은 기술과 인내력,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경기전기간 주도권을 쥐고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압도해나갔다.

빠른 좌우이동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좌절시키면서 앞손기만에 의한 뒤손련결타격, 올려치기 등 련속 강타를 들이댐으로써 장은희선수는 중국선수를 2:1로 이기고 1위를 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장은희선수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높이 올랐다.

한편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김은향, 송남향선수들은 물에 뛰여들기 녀자2인 10m고정판경기에서, 윤원철선수는 레스링 남자고전형 59㎏급경기에서 각각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또한 녀자탁구선수들은 단체전경기에서, 최은경, 김진옥선수들은 물에 뛰여들기 녀자2인 3m탄성판경기에서, 리학원선수는 레스링 남자고전형 66㎏급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 와우도구역 일군들

기상수문국 서해해양연구소 자매도해양관측소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훌륭히 변모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은 우리에게 관측소 소장 홍동길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과학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있는 와우도구역 일군들을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과학기술부문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고있는 와우도구역 일군들처럼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는 참된 일군들이 있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있는것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곧 당과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됩니다.》

몇달전 구역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구역안의 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가 진지하게 진행되고있었다. 안건은 자매도해양관측소지원사업과 관련한것이였다.

자매도해양관측소에 료해를 나갔던 어느 한 일군이 관측소의 중요성과 현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자매도해양관측소는 바다쪽으로 멀리 나가있는 외진 섬관측소로서 조선서해를 거쳐 이동해오는 일기과정을 맨먼저 관측하고 통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관측소의 현실태는…》

보고를 듣는 책임일군의 머리속에는 벌써 해양관측소지원사업계획이 무르익고있었다.

륙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해양관측소의 실태가 눈앞에 방불하게 떠올랐기때문이다.

실태보고가 끝나자 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의견을 물었다.

지원사업을 조금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고 건물보수용자재나 보장해주는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구역안에 제기되는 수많은 일들을 고려하여 내놓는 협소한 방안들이였다.

책임일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무들, 자매도해양관측소를 지원하는 사업은 단순히 어느 기관을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예보사업은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매도해양관측소지원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합시다.》

이어 부장 리명진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건설력량이 조직되고 매 단위별로 지원사업을 위한 분공조직이 진행되였다.

구역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구역에서는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하루동안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물자를 준비하였다.

다음날 수십명의 사람들이 많은 건설자재와 물자들을 배에 옮겨싣고 섬을 향해 떠났고 관측소꾸리기사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물을 일떠세우도록 하기 위해 건설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벽체까기와 쌓기, 지붕공사, 울타리공사, 미장, 도색, 타일붙이기, 도배, 출입문과 창문교체를 비롯한 모든 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살림집과 창고, 관측실, 울타리, 해양관측장을 완전히 일신시켰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관측소를 보며 서해해양연구소의 일군들과 자매도해양관측소의 사람들은 기뻐하였지만 구역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구역일군들은 관측원들과 밤길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관측을 도와주는 과정에 섬생활에는 부족한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구역에서는 륙지와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서 묵묵히 해양관측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자매도의 관측원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이렇듯 성의있는 지원에 고무된 서해해양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 자매도해양관측소의 관측원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해양관측과 예보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제11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

제11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나노기술국,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교육위원회,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나노리론 및 측정, 나노재료 및 요소, 나노의학, 농업, 환경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110여건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발표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나노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을 소개하였다.

나노재료의 제조와 측정, 응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한 첨단과학연구성과들과 경제건설에 도입되여 은을 낸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는 농업용나노살균제, 레드용나노반사판, 천연나노분산제 등 농업, 금속, 건재, 경공업,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나노기술도입성과를 보여주는 120여종의 첨단기술제품들과 재료들이 출품되였다.

1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우리 나라 외무상일행 모스크바 도착

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9월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로씨야외무성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이 맞이하였다.

나이제리아특명전권대사 독립 54돐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나이제리아독립 54돐에 즈음하여 은워페 알렉싼더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나이제리아친선협회 위원장인 서호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성덕 외교단사업총국 부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나이제리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나이제리아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담화

우리는 얼마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4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여 조국통일실현의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정부를 세우며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북과 남에 근 70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련방제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로 6.15통일시대를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6.15공동선언에서 북남쌍방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북과 남이 장구한 민족분렬사에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이룩한 합의로서 우리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념원과 노력은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분렬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통일방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집권유지를 위하여 각양각색의 그 무슨 《통일론》을 들고나와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흡수통일》책동때문이다.

현 남조선괴뢰대통령 박근혜는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갖은 궤변들을 다 늘어놓고있다.

지어 현 남조선당국자는 유엔무대에까지 찾아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도이췰란드의 통일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흡수통일》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북남사이에 이미 합의된 통일방식을 통채로 뒤집고 외세의존에 물젖어 제나름의 《통일론》을 들고나다니는것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대결정책의 발로이며 엄중한 도발행위로 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벌려놓고있는 책동의 위험성은 그것이 전임자의 대결소동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과 전쟁만을 불러오게 될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국제공조》로 반공화국분위기를 고조시켜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데 있다.

국제사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란다면 응당 현 북남대결은 곧 통일방식의 대결이며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시도가 전쟁만을 불러오게 되여있다는데 대하여 바로 인식하고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방식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만일 진심으로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해외에 들고다닐것이 아니라 우선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문제에 관한 민족적론의에도 응할수 있는지 자기의 립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무모한 대결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을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주체103(2014)년 10월 1일
평양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인민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

고마운 제도와 부럼없는 삶

락랑구역 충성1동 2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행진, 박봉림부부가 들려준 이야기

얼마전 우리는 락랑구역 충성1동 2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행진, 박봉림부부의 집을 찾았다. 우리는 김행진, 박봉림부부와 마주앉았다.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부부는 조용히 추억을 더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혁명가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공로자들은 국가적보호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사랑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김행진로인과 박봉림녀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서울해방과 함께 의용군으로 입대하였다. 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후 서로 다른 초소에서 일하다가 만나게 된 그들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루었다.

나라에서는 그들부부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었다. 함께 일하는 동지들은 그들이 맡은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일이 힘들 때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원쑤격멸의 총창을 비껴들고 화선길을 누비던 전화의 나날의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조국은 영예군인의 몸으로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그들사이에 자식들이 태여나고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여났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였다.

《돌이켜볼수록 정말 보람찬 삶이였습니다.》

김행진로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박봉림녀성이 말을 이었다.

《그 나날에 우리에게 식솔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른다오.》

지난봄 건군절이였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행진로인의 집으로 인민반장이 들어섰다.

《아버님, 어머님, 명절을 축하합니다!》

얼마후 인민반의 녀인들이 또 찾아왔다. 또 얼마후에는 동의 일군들, 식료품상점의 낯익은 판매원을 비롯한 동과 구역의 많은 봉사자들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후에도 문두드리는 소리, 축하의 전화는 그칠새 없었다. 진정 모두가 한 식솔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였다.

부부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지난해 김행진로인이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의 제도가 있어 우리모두가 한식솔이 되여 행복한 삶도 누리는것이 아닌가.)

집안은 한동안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문득 인민반의 한 녀인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그런데 늘 보이던 아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자 박봉림녀성이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아들은 벌써 왔다 갔다오.》

모두가 《정말 아들은 아들이요.》하고 혀를 차는데 김행진로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친아들이 아니라니?!)

화제에 오른 그 아들은 건설건재공업성 돌가공관리국 평양돌가공제품전시관에서 일하고있는 한영환동무였다. 그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이야기하랴.

여러해전 건군절을 앞두고 전쟁로병부부의 집으로 찾아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며 이제부터 자기가 친아들이 되겠다고 절절히 이야기하던 사실, 영예군인들인 전쟁로병부부를 위해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건강상태를 알아보며 왼심을 쓰던 일, 대학시절 학습을 더 잘할 결의를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고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은 딸 설향이와 함께 자주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어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던 일, 언제인가 박봉림녀성이 앓고난 뒤 입맛을 돋구라고 물좋은 이면수를 내놓으며 우리 집사람이 보내는거라고, 그의 아버지도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이였다고 말하여 가슴을 울리던 일…

《그 아들이 글쎄 전승절을 앞두고 맞게 되는 우리 집사람의 80돐생일을 보란듯이 크게 쇠자는게 아니겠소.》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사람들이 《옳수다. 저 사람 못살 남조선에서도 다 알게 크게 쇠자구요.》하며 떠들썩하였다.

건군절에 있은 일들을 추억하고난 박봉림녀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생일을 맞던 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수다. 부부가 아들이 성의껏 마련한 새옷을 입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수다.

성과 돌가공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동의 일군들과 로병들, 봉사자들의 뜨거운 지성을 느끼며 우린 기쁨속에, 눈물속에 〈전호속의 나의 노래〉도 부르고 〈샘물터에서〉도 부르며 춤을 추었수다. 그 옛날 남조선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던 신문배달부, 부자집아이보개가 고마운 제도에서 떳떳하게 가슴펴고 복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부러워하라고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박봉림녀성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들부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났다.

김행진로인이 안해의 말을 이었다.

《이 고마운 제도를 떠나 어찌 우리의 삶을 생각할수 있겠소. 여생을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제도를 빛내이는데 바칠 마음뿐이요.》

본사기자 현경철

대동강반의 이채로운 풍치

시원한 가을바람에 대동강반의 버들가지가 흐느적이는 풍요한 이 계절 수도 평양의 그 어디를 가보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이채로운 풍경을 볼수 있다. 거리와 마을의 곳곳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일요일 저녁무렵이였다.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공원을 지나던 우리는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바라보니 공원의 배구장에서 배구경기가 한창이였다.

배구장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깨성을 쌓다싶이 하며 경기를 구경하고있었다. 사람들너머로 배구장을 바라보던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 팀의 선수들은 모두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늙은이들이였고 상대편팀의 선수들은 대학생인듯 한 젊은이들이였던것이다. 보다 놀라운것은 로인팀의 배구솜씨였다.

《지금 두 팀의 경기성적이 1대 1이 된 가운데 3회전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 로인들은 아마 젊었을적에 모두 배구선수들이였나봅니다.》

곁에서 열광적인 박수속에 경기를 구경하던 대학생의 이야기였다. 그러자 나이지숙한 한 손님이 저 로인들은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진행되는 배구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인데 지금 그 준비로 대학생팀과 친선경기를 진행하고있다고, 매 선수들이 한때 한다하는 배구선수들이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타격이며 막기, 공련락 등 로인들의 공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우리가 치렬하게 벌어지는 배구경기에 심취되여있는데 별안간 배구장너머에 꾸려진 민속오락장에서도 《야—》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곳에서는 주변마을의 주민들인듯싶은 녀인들이 윷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시원하게 꾸려진 공원의 로라스케트장에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신바람이 나서 로라스케트를 타고있었다.

드넓은 공원을 둘러보니 공원의 어디라 할것없이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는데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훌륭히 꾸려진 공원에서 일요일의 하루를 즐기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일요일 저녁 대동강기슭에 펼쳐진 풍경, 수도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례사롭고 평범한 풍경이였지만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서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생활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 뜻깊은 모습이였다.

본사기자 리남호

제대군관아버지의 기쁨

염주군 하석리에서 사는 **신유정동무**는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대 후방가족이다.

제대군관인 그는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늘 총대가 강해야 조국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고 하면서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되여야 한다고 이르군 하였다. 두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차례차례 혁명의 군복을 입었고 지금은 름름한 인민군군관이 되였다.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실천행동으로 병사들을 교양하고 억세게 키우는 거울이 되여야 한다고 부탁하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윤복

세쌍둥이가 받은 생일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창성소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최백경, 최선경, 최강경학생들이 얼굴에 기쁨을 함뿍 담고 창성각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은 세쌍둥이였다. 창성각의 봉사자들이 달려나와 세쌍둥이에게 소담하게 엮은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우리 창성땅의 자랑인 세쌍둥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봉사자들은 세쌍둥이의 부모인 최영훈, 김영녀동무들에게도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세쌍둥이가 지난해보다 키가 한뽐은 더 큰것 같습니다.》

세쌍둥이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며 봉사자들이 정깊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갖가지 료리들이 차려진 식탁앞에 마주앉은 세쌍둥이에게 군당의 책임일군이 다가갔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몸도 튼튼하게 단련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소년단원들이 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의 일군들과 창성각의 봉사자들이 세쌍둥이에게 기념품들을 안겨주었다.

맛나게 음식들을 들며 기쁨에 넘쳐있는 세쌍둥이를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는 일군들과 창성각의 봉사자들의 모습은 마치 대견한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그들을 일별하는 최영훈, 김영녀동무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물결이 일렁이고있었다. 세쌍둥이와 함께 해마다 맞이하는 감격적인 화폭이였다.

아직은 인생의 초엽에 불과한 자식들의 성장과 더불어 덧쌓인 행복과 기쁨은 그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평양산원에서 생의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오늘까지 세쌍둥이와 부모에게 안겨진 당의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철따라 차례지는 새옷들과 보약들, 읍거리 한복판의 제일 양지바른 곳에 덩실하게 터를 잡고 일떠선 새 살림집과 주마다 건강검진을 위해 찾아오는 의사들, 집에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세쌍둥이에게 맛보이라고 들고오던 직장의 종업원들과 다정한 이웃들…

군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집을 꼽는다면 아마도 세쌍둥이네 집일것이다.

따사로운 우리 당의 손길은 세쌍둥이의 결에서 잠시도 떠날줄 몰랐다.

세쌍둥이에게 돌려지는 당의 사랑을 더 뜨겁게 이어주려 창성각의 봉사자들은 해마다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었고 그들의 언니가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상도 마련해주었다.

사람들이 세쌍둥이의 어머니는 정말 복을 타고났다고 부러움에 넘쳐 말할 때마다 김영녀동무는 생각한다. 이것이 정녕 타고난 복이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만 누릴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랴.

군당의 책임일군들과 창성각의 봉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쌍둥이가 나란히 일어섰다. 군학생소년회관에서 음악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세쌍둥이가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세쌍둥이가 제일 즐겨부르는 노래였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최영훈, 김영녀동무들도 눈물속에 따라불렀다.

뜻깊은 생일상앞에서 세쌍둥이가 부른 노래, 그것은 온 나라 천만아들딸들을 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가득 어려있는 행복의 메아리였다.

본사기자 조경철

국제로인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국제로인의 날에 즈음하여 1일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우리 당이 펼치고있는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 리의 세계는 국제로인의 날을 맞는 년로자들에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친 값높은 삶의 보람을 가슴뿌듯이 새겨주고있다.

봉화예술극장에서는 국제로인의 날 기념 평양시년로자들을 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정영수로동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내 전쟁로병들, 공로자들, 년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였다.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2중창과 합창 《그이 없인 못살아》, 무용 《쟁강춤》, 가무 《행복의 니나니난노》, 가야금병창 《모란봉닐리리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녀성민요독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잊습니다》, 남성독창 《말하라 선군길아》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남성독창 《배나무집에 경사났네》, 민요련곡 《도라지》, 《평북녕변가》의 흥겨운 노래가락이 울려퍼지자 년로자들의 어깨춤이 장내에 펼쳐져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공로자명배우예술선동대의 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비전향장기수부부가 부르는 노래 《전선에서 만나자》, 《불타는 소원》 등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이라는 로인들의 마음속진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팔골공원, 북새체육공원 등 각 구역마다에 꾸려진 유원지, 공원들에서는 평양시년로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있었다.

로동당시대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로인들의 운동회가 관람자들의 열띤 응원속에 진행되였다.

공이고달리기, 풍선치며 달리기, 활쏘기를 비롯한 유희경기들에 출전하여 마음맞춰, 발맞춰 팀의 승리를 위해 전심전력하고있는 그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은 만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춘들 못지 않은 패기와 능숙한 솜씨로 배구경기를 진행해나가는 년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누려가는 생의 랑만과 희열이 한껏 어려있었다.

모란봉유원지, 대동강유보도에서는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노래도 흥겹웁게 어깨를 들썩이는 로인들의 춤판이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놓았다.

옥류관과 청류관, 개선내포국집을 비롯한 급양망들과 편의봉사시설들에서의 친절한 봉사는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로인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년로자들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릉라인민유원지 등 문화휴식터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으며 다양한 참관사업도 진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며 전쟁로병들과 년로자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 있어 이 땅우에는 승리자들의 긍지높은 력사가 영원히 흐를것임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릉라곱등어관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펼쳐지는 곱등어들의 재주를 웃음속에 보며 로인들은 자기들을 혁명선배로 내세워주며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고마운 은덕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애국충정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년로자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며 인생의 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분위기가 조국땅 방방곡곡에 차넘쳤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양로원들을 찾아 생활용품들과 기념품들을 안겨주었으며 각 도 예술극장들에서는 예술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각지에 있는 명승지와 유원지마다에서는 이날을 의의깊게 보내려는 년로자들의 유희오락경기들이 벌어졌으며 편의봉사시설들에서는 로인들을 위한 특색있는 봉사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아나똘리 돌가체브 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업적을 잘 아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이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을 지니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한 성지로 깊이 새겨져있을것이다.

이곳을 방문하고 받은 감동을 우리는 일생토록 잊지 못할것이다.

손님들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친혈육보다 뜨거운 정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신의주시 역전동 7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차성애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제가 처음 그를 알게 된것은 몇해전 새 집을 받고 이사를 하였을 때입니다. 어느날 그는 인민반장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 저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을 알아보면서 따뜻한 정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 저를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군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결혼상도 차려주고 새 양복과 구두, 와이샤쯔와 내의도 안겨주었으며 저의 안해를 위해 세탁기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는 역전동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도 병치료에 좋은 약재들을 안겨주고 땔감도 실어다주군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둘째딸과 함께 화분을 안고 저의 집에 찾아와 해빛이 드는 창가에 놓아주고 새로 나온 도서들도 안겨주면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에서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을 위한 일이라며 세바퀴차와 치료기구, 의학도서들을 마련하여주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문화용품들을 마련해주던 일들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의 뜻을 받들어 저와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친혈육보다 더 뜨거운 그 진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신의주시 성남동 44인민반 최룡관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 망해가는 자본주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한생을 바쳐온 공로자들이 혁명선배라는 부름속에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을뿐만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후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세계를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피로써 지켜낸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친 구슬땀도 적지 않건만 나라의 쌀독에 한줌의 낟알이라도 보태고싶어 스스로 로병분조를 뭇고 농사를 짓는 전국각지의 많은 전쟁로병들, 만경대의 정갈한 샘물을 떠안고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찾아가는 만경대구역의 샘물할머니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선배들의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읽는다.

자신들의 여생까지도 다 바쳐 조국에 젊음을 보태주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는 날로 젊어지고있는것이며 온 나라 인민이 그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모습이다.

하다면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로인들은 사회의 페물로 취급당하고있다.

오늘날 로인학대는 자본주의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풍조로 되였다.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낳아키워준 부모에게까지 뻗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버림받은 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일본에서 발행된 《2013년 자살대책백서》에 의하면 자살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데 그중 60살이상의 늙은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인간생지옥 남조선의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

남조선의 어느 한 양로원원장은 로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식들에게서 내버려진 부모들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자식들은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놓고는 〈함흥차사〉가 된다.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다. 병증세가 심해져서 련락하면 죽기를 바라는 말투이다.》

지금 남조선에는 자식의 버림을 받고 홀로 살아가는 로인들과 죽은 후에도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사망자》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심각한것은 자식들에게서까지 버림받은 로인들의 마지막선택이 결코 자살만이 아니라는것이다.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는 지난날 범죄의 피해자로 되였던 로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지난해에만도 남조선에서 로인범죄건수는 무려 13만 6 200여건으로서 2007년에 비해 3만 5 000건이나 증가되였다고 한다. 그중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강력범죄건수는 5 500건을 헤아린다고 한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70살이 넘은 로인이 상점의 물건을 훔치고 경비원을 살해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로인들이 혁명선배로 존경받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생을 빛내이고있을 때 극도의 절망속에 빠진 늙은이들이 자살과 범죄로 불우한 생을 마치는 판이한 두 현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같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이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라는 흥겨운 노래속에 혁명의 로세대들이 활기에 넘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라면 사회와 혈육들의 버림을 받은 로인들처럼 인류의 버림을 받고 나날이 늙고 망해가는것이 바로 림종이 박두한 자본주의사회이다.

승철진

미일침략자들의 죄행자료들 새로 발굴전시

개성시계급교양관에서

개성시계급교양관에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적만행을 감행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죄행을 실증하는 90여점의 반미, 반일교양도서자료와 증거물들을 새로 발굴전시하였다.

전시된 일본 등 여러 나라 출판물들에는 조선침략을 실현할 야망밑에 일제야수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후 피묻은 그의 몸에서 귀중품을 빼내여 본토에서 경매에 붙인 만행자료와 고려성균관과 공민왕릉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들을 파괴하고 고려자기와 금품을 비롯한 수만점의 유물들을 훔쳐내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뻔뻔스럽게 팔아먹은 범죄자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일제침략군이 조선의 수많은 녀성들을 끌어가 성노리개로 릉욕하고 무참히 살해한 내용, 광수리에 있던 유명한 민족문화유산인 경천사탑을 섬나라로 훔쳐갔던 사실 등 일제의 만고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자료들도 있다.

개성땅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이 《치료》의 명목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악착하게 살해하는데 사용한 각종 약병, 도구와 사진자료들은 미제의 귀축같은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박연—령통사관광도로건설장에서 발견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사용하던 총과 불발된 폭탄들, 려현리에서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사용한 각종 흉기들과 사진자료들은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급교양관에는 또한 미국과 유럽렬강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를 반영하여 1871년에 만든 《척화비》 탑본이 새로 발굴전시되여있다.

계급교양관을 찾는 참관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수 없는 미일침략자들의 치떨리는 죄행을 단죄하고있으며 포악무도한 원쑤들과는 오직 총대로 최후결산을 하고야말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과 죽음뿐이다

삐라살포는 북침전쟁도발음모의 발로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언제 전쟁의 포성이 울릴지 모를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특히 거짓과 모략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괴뢰들의 삐라살포소동은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북남사이의 우발적인 충돌도 전면전쟁에로 급속히 확대될수 있는 첨예한 현정세하에서 상대방을 겨냥하여 벌리는 삐라살포소동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것과 같은 엄중한 도발행위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남조선당국의 삐라살포소동은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행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서로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들을 일체 중지하는것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때문에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과 삐라살포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민족앞에 약속한 합의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삐라살포소동을 악랄하게 벌림으로써 북남관계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바싹 몰아가고있다.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정치적도발이며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모든 합의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 단체인사들이 괴뢰당국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의 목적은 북을 자극하여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히면서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반공화국심리모략소동의 중단과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는자들을 즉시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역적무리들은 불순하기 그지없는 삐라살포놀음을 중지하려 하지 않고있다. 괴뢰패당은 삐라살포행위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삐라살포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삐라살포망동을 계속 묵인, 비호하고있다. 괴뢰들은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흔들리지 않겠다.》느니,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내뱉게 하는 한편 이 인간추물들에 대한 그 무슨 《신변보호조치》를 떠들며 그자들의 삐라살포행위를 더욱 조장하고있다. 삐라살포가 감행될 때마다 괴뢰군부대들에서는 관하 전연경계부대들과 감시초소들에 삐라살포시간과 장소는 물론 풍선형태와 색갈에 이르기까지 미리 통보해주는가 하면 《대북풍선단》소속 인간쓰레기들을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에 뻐젓이 들여놓고 그들에게 살포방식까지 알려주고있다.

이 모든것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함으로써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저들이 처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자는데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괴뢰군사병들의 련이은 자살사건, 관료배들의 온갖 추문과 부정부패사건 등으로 하여 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있다. 날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있는 반역패당에게는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략소동이 필요하였다. 더우기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저들이 마치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떠는 한편 삐라살포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려 하고있다.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파국과 더욱 첨예해지는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겨보려는것이다.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허위와 날조, 비방중상과 궤변으로 일관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삐라살포소동은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음모의 발로이다.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직전에 하는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이며 전쟁도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대방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는 국제법에도 전쟁행위로 공인되여있다. 인류력사는 대방에 대한 모독이 전쟁발발의 요인으로 된적도 있다는것을 기록하고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남조선괴뢰들이 최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삐라살포소동은 무심히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남사이에 지금과 같이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속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임의의 도발도 무력충돌과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 될수 있다. 더우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은것은 북남합의와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로골적인 전쟁도발행위이다.

괴뢰당국도 저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고 북남사이의 무장충돌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괴뢰당국은 우리의 있을수 있는 반격에 대비한 군사적태세까지 미리 갖추게 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저지르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때마다 우리 군대의 보복대응이 두려워 우리측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기포병들은 즉각사격태세를 유지하게 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괴뢰당국이 삐라살포가 군사적대응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불씨로 된다는것을 알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을 강행하고있는것은 북침전쟁을 작정한자들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올해에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것이 적용되였다. 북남쌍방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강점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방면의 미제침략군을 총출동시켜 북침전면전쟁을 감행한다는것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골자이다. 이 계획에는 국부전쟁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하기까지의 모든 작전내용들과 여기에 투입되는 군사적력량과 작전수단들 그리고 여러가지 전쟁도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여있다. 따라서 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에는 우리와의 충돌을 일으켜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범죄적흉계가 깔려있다.

현실은 역적패당이 이미 전쟁을 작정하고 이 대결놀음에 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며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강행한 주모자, 가담자들이 결코 무사치 못할것이라는것을 선언하였다.

남조선괴뢰당국은 저들의 직접적인 조장과 묵인, 비호하에 감행되고있는 삐라살포놀음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가를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김 현 철

북남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괴뢰당국의 계속되는 도발적망동으로 말미암아 수습할수 없는 파국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지난 9월 21일 악질《탈북자》단체의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을 걷어모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놀음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이번 삐라살포망동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북남사이의 대화를 가로막고 관계개선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남조선 각계에서도 강력한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9월 21일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단체의 망동을 단죄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북과 남이 민족앞에 확약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의 금지와 풍선을 리용한 물품살포중지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까밝히면서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자녀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녀성은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한창 진행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삐라를 살포하면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한것은 고상한 체육리념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정신에도 어긋나는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삐라살포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한 녀성단체의 성원은 《삐라살포행위는 정치적갈등을 심화시킬뿐아니라 군사적충돌위험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삐라살포가 개인의 자률적행위이므로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하면 군사지역주변에서 작전수행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수 있게 되여있다고 까밝히면서 당국이 직접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막을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남조선정계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9월 26일 새정치민주련합은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삐라살포행위를 중단할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삐라살포로 북남관계의 기초적인 신뢰마저 허물어지고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단순히 민간인들의 문제로 방치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당의 한 인물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누리당》내부에서도 삐라살포가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의 삐라살포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어 그는 집권자가 유엔총회에서 북남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한 민심의 비난은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당국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리명박《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새정치민주련합은 9월 22일에도 론평을 발표하여 《탈북자》단체의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론평은 군사지역에서 북남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것이 너무나도 응당한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자》단체의 삐라살포놀음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란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위기국면에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있는 괴뢰보수당국의 망동은 그들이 운운하는 《대화》타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해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 보수당국의 기만적정체를 꿰뚫어본 남조선인민들은 반역《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미

괴뢰당국의 대결소동을 비난

괴뢰집권자가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이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지난 9월 26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유엔총회에서 취한 박근혜의 태도로 남북관계는 더욱 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이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할것》이라고 한것은 과거 리명박《정권》의 《비핵, 개방, 3 000》과 다를바 없다고 신문은 까밝혔다.

이날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집권자가 북을 반대하는 선전에 앞장섰다고 비난하였다.

대결광신자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국제무대에서 북을 비난하고 남북대화에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공허한것들을 렬거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5. 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그 무슨 《지원》을 운운하는것은 기만이라고 비난하였다. 남북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대신해줄 일이 아니라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은 지난 9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삐라살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삐라살포행위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삐라살포를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 *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9월 26일 괴뢰호전광들이 도처에서 화약내를 풍기며 우리를 겨냥한 화력타격연습에 광분하였다.

괴뢰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대천사격장에서 그 무슨 화력시범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각종 미싸일과 포들을 쏘아대며 전쟁열을 올렸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종합훈련장에서는 괴뢰륙군이 새형의 땅크와 20사단이 보유한 땅크, 장갑차, 포 등의 화력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어 호전광들은 땅크, 장갑차들을 기동시키며 공격훈련에 돌아쳤다.

포천 등지에서도 괴뢰호전광들은 자동포, 장갑차들의 기동 및 화력타격훈련과 새로운 땅크파괴용 유도무기의 사격훈련을 비롯하여 선제타격을 위한 군사연습들을 발광적으로 벌려놓으며 대결을 고취하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은 괴뢰당국이 떠드는 《대화》타령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불법선거행위를 감추기 위한 엉터리판결놀음

남조선에서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또다시 첨예해지고있다.

발단으로 된것은 지난 9월 11일 정보원선거개입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괴뢰정보원장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하여 내려진 무죄판결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이 야당후보들을 헐뜯는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정치개입을 했고 《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렇게 되자 야당세력들은 원세훈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판결》이라고 하면서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정보원법〉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항의를 들이댔다. 그에 대해 괴뢰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려면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락선을 위한 행위라는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처사를 합리화해나섰다. 그야말로 생억지가 아닐수 없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괴뢰검찰의 수사정형을 놓고보더라도 원세훈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현 집권자의 당선을 적극 지원하였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3월 남조선에서는 원세훈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심리전강화방안》의 탈을 씌운 문건을 《원장님지시》형식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졸개들이 현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모략선전을 하였다는 정보원내부자료가 발견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었다. 그 이후의 검찰수사에서도 원세훈이 숱한 정보원요원들을 발동하여 현 집권자를 추어올리고 야당후보를 헐뜯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대량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세훈을 피수로 한 정보원패거리들의 이러한 선거여론전이 과연 현 집권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더우기 원세훈역도의 비렬한 처사가 처음부터 보수《정권》연장을 노린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는것이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 그의 지시에 따른 활동이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시녀인 괴뢰법원은 엄연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지난해 괴뢰패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들을 마구 비방하는 모략글들을 대량적으로 올린 정보원 녀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개입을 금지한 《정보원법》에는 위반되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결론을 내려 민심의 경악을 자아냈었다. 그에 이어 이번에 모략적인 방법으로 현 집권자의 당선을 적극 후원한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고 《정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괴뢰패당의 책동이 날로 더욱 뻔뻔스럽고 파렴치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괴뢰법원이 현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데는 청와대의 촉수가 뻗쳐있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청와대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 전기간에 걸쳐 사건을 은폐,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불법선거운동협의를 의미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사법당국에 경고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지난해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한 인물의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괴뢰경찰청의 고위인물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을 의미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자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수사가 한창 벌어질때 수사를 맡고있는 검사에게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사실들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괴뢰법원의 판결놀음이 청와대패거리들의 끈질긴 음모책동의 산물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얼마전 싸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선거개입은 있었으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괴뢰국방부의 엉터리수사결과발표와 별반 다를바 없다.

사건을 조사한 괴뢰군부는 싸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여론에 영향을 주는 7 000여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우기였다.

괴뢰군싸이버사령부와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하여 저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련이어 내려지자 괴뢰보수패당은 때를 만난듯이 불법선거를 주장한 야당에 대해 《대선불복》이니, 《정치공세》니 하고 피대를 돋구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제편에서 큰소리를 치고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정보원선거개입론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바로 여기에 사상 류례없는 선거부정행위로 권력을 탈취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날로 심화되는 집권위기에서 헤여나보려고 발버둥질하는 괴뢰보수패당의 속심이 깔려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의 진실을 한사코 오도하며 저들의 재집권내막을 감추어보려고 발악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많고 명백하다.

괴뢰들의 유치한 놀음은 선거부정행위왕초로서의 그들의 더러운 정체를 다시한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유일초대국》의 지위유지는 헛된 망상

최근에 미군이 지구상의 그 어떤 목표도 한시간내에 타격할수 있는 새로운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을 완성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였다. 이 전략은 중국을 첫째가는 타격목표로 하는외에 우리 나라와 이란 등을 겨냥한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과 대양에 각종 군사기지를 두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미본토와 세계곳곳에 배비된 대륙간탄도미싸일과 핵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와 같은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서도 능히 짧은 시간내에 해당한 목표를 타격할수 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극초음속타격수단들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있다.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은 바로 이런 무기들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완성한것이다.

미군의 새 전략은 한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임의의 지역에 있는 적군의 타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는 뒤에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론할것은 이 전략에 내포되여있는 위험성과 무모성이다. 새 전략에 따라 미군이 정하게 될 첫째가는 타격목표들은 적군의 이동식발사대를 포함한 미싸일발사기지, 지휘소, 핵시설 등이다. 만약 대륙간탄도미싸일이나 잠수함탄도미싸일 등에 의한 공격이 실패하는 경우 미군은 극초음속전략폭격기를 즉시 출격시켜 해당한 목표들을 타격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분석해보면 미군이 완성한 새 전략의 중점은 적군의 타격을 불의적이고 즉시적인 선제공격으로 마비시키는데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군의 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기본수단은 미싸일방위체계였다. 적군이 발사한 각종 탄도미싸일들을 요격하여 세계곳곳에 널려있는 미군사기지들과 본토, 동맹국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현대판 《별세계전쟁》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은 발악적으로 책동하여왔다. 아시아와 유럽 등의 넓은 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미군사기지들이 계속 전개되고있다.

오늘에 와서 미싸일방위체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보다 엄중한것으로 바뀌고있다. 최대의 방어는 기습선제타격이라는 원리밑에 군사전략을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완성해놓고있다는데 그 위험성과 무모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를 차요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미국이 적군의 탄도미싸일과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레이자무기의 개발에 광분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최근 미국의 보잉회사가 이동식고에네르기레이자무기를 공개하였다. 회사는 이 무기를 가지고 3차례의 시험을 하여 150여기의 로케트와 무인기 등 가상적인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요격》하였다고 광고하고있다. 지금 미국의 보잉회사를 비롯한 여러 군수업체들이 미국방성과 계약을 맺고 고에네르기레이자무기개발에 뛰여들어 치렬한 경쟁을 벌리고있다. 미국은 요격미싸일과 같은 방어수단뿐아니라 그를 대신할수 있는 고에네르기레이자무기와 같은 새로운 수단들을 개발하여 방위체계를 보다 완비하려 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을 내놓고 첨단무기개발등에 발광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기울어져가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한사코 부지하여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유일초대국》이 되여 전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이다.

랭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할 때가 되였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랭전종식후 20여년을 흘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한사코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그 실현수단이 전략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첨단무장장비들이다. 하지만 21세기는 결코 미국이 판을 치는 일극화시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힘을 나타내는 두 상징인 첨단핵무기와 딸라의 위협력과 지배력은 급속히 약화되고있다. 여러차례의 전쟁들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한 미국은 기력이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여러 대국들이 세계경제는 물론 평화, 안전보장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들을 미국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힘으로 처리할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쇠퇴몰락하고있으며 《유일초대국》의 지위에서도 밀려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런 미국이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을 내놓고 첨단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여전히 세계를 제패해보겠다고 날뛰는것은 멸망해가는자의 최후발악이다.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우선 새 전략에 맞게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개조하자면 예산상 제한을 받게 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극초음속전략폭격기를 개발하자고 해도 아직은 7~10년이 걸려야 한다는것이다.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날뛰는 미국의 군사적책동은 무모한 망동이며 제 처지도 모르고 날뛰는 파대망상증의 발로이다. 미군의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강행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행위로 된다.

작용과 반작용은 결코 자연계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다.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로씨야는 비록 자국이 미군의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의 선차적인 공격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긴급대응책마련에 나섰다. 로씨야국방성이 미군의 새 전략이 공개되자 그에 맞서 자국식《전격타격체계》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니 미군의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의 공격대상명단에 올라있는 나라들이야 두말할것이 있겠는가.

미군의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은 우리의 주되는 적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확증해주고있다.

미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은 때때로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려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군 한다.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이런 나발은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이 난처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줴치는 한갖 기만선전에 불과하다는것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미국이 완성한 《전세계신속타격계획》전략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든든히 갖추어나갈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혁명무력이 정례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로케트발사를 비롯한 우리가 취하는 모든 자위적조치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미국은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려는 시도가 헛된 망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 경 수

국제적반발을 불러오는 반꾸바봉쇄책동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국이 꾸바에 대한 봉쇄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세기를 두고 감행되여오고있는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의 집요성과 악랄성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은 50여년간의 력사를 헤아리고있다.

지난 세기 미국은 《토리쎌리법》, 《헬름즈—버튼법》, 《꾸바조절법》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꾸바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은 최근년간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꾸바의 국제금융거래들을 항시적으로 추적하고 난관을 조성하여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압살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꾸바상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있다. 미국의 봉쇄로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새 기술도입이 난관을 겪고있다. 지난달 꾸바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미국의 봉쇄책동으로 대외무역부문에서 최근 1년동안에 39억US$어치의 손실이 초래되였다고 한다.

사회주의,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꾸바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고 친미정부를 세우기전에는 절대로 반꾸바봉쇄정책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이 반꾸바봉쇄철회와 관련한 유엔결의는 안중에도 없이 놀아대는것도 다 이때문이다. 벌써 22년째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엔총회마당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미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규탄하는 결의가 절대다수 성원국들의 지지속에 또다시 채택되였다. 결의는 미국이 50여년간에 걸쳐 꾸바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책동에 매여달림으로써 이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데 대해 폭로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르는 의무들에 부합되게 꾸바를 반대하는 법과 조치들을 공표하고 적용하는것을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연단에 나선 각국의 대표들은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있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처사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반꾸바봉쇄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미국이 반꾸바봉쇄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 비난뿐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꾸바가 강경립장을 취하고있다. 얼마전 꾸바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내용으로 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봉쇄는 꾸바를 반대하는 하나의 전쟁으로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으며 특히 보건, 교육, 체육, 문화분야들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부당한 반꾸바봉쇄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반꾸바봉쇄를 한시바삐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꾸바와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로씨야가 미국의 반꾸바봉쇄정책을 지체없이 페지할것을 주장하였다. 얼마전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실시하는 반꾸바봉쇄정책을 지체없이 페지시키기 위한 꾸바측의 노력을 지지하고 타국에 계속 남아있는 꾸바공민들을 조국으로 즉시 돌려보낼것을 주장하였으며 꾸바를 《테로지원국명단》에 포함시킨것을 규탄하였다.

앙골라꾸바친선협회 서기장은 최근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꾸바혁명을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저렬하고도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에꽈도르대통령, 엘 쌀바도르 외무상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은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응당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41153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